

“임금인상 더, 유급휴가도 더... 단체교섭권 보장하라”

삼성 노조, 공동 지원단 발대식

실제 임금 인상률 5% 그칠 것 유급휴가도 조건없는 7일 요구 노조 두고 노사협과 협상 ‘불법’ 노동부에 고발... 연대투쟁 예고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임금 9% 인상 약속에도 사측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3일 국회 앞에서 ‘공동 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삼성전자가 최근 9% 임금인상과 유급휴가 3일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 임금 교섭을 타결한데 대해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이 고임금 임원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은 5%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 노조는 사측이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와 협상을 마친 데 대해 크게 반발했다. 노조를 두고도 노사협의회와 협상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전날 노동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도 제출했다. 이같은 조치를 ‘노조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한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 지원단 발대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마무리한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현행법상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를 근로자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 일부 기업은 과반을 넘지 않은 노조와도 협상을 진

행하고 있지만, 노노 갈등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실질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약속했던 임금인상률은 7.5%,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인상률은 13.4%였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평균 급여도 1억3500만원에 달했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고연차 부장급이나 저평가지만 사측 제시 비율보

다 낮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을 뿐, 오히려 올해 역대 최대 수준 실적을 경신하면서 성과급 등으로 기대 이상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노조가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휴식권’도 사측은 일부 수용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연차 휴가에 유급휴가를 추가해달라는 요구안을 핵심 내용으로 꼽아왔다. 유급휴가를 준다면 원만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유급휴가 3일을 제시했고, 최근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입장을 바꿔 조건 없는 유급휴가 7일 지급과 함께 임금 정액 인상과 성과급 정률제를 ‘물려설 수 없는 요구안’으로 다시 정정하며 평행선을 달러왔다.

아울러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비와 같이 핵심 경영진인 경계현 사장이 직접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노조는 또다시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택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때문에 삼성 노조가 사측과 협상이 아닌 갈등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적지 않다. 삼성 노조가 새로 구성

된데다가 조합원 숫자도 적은 만큼, ‘이슈 물이’를 통해 존재감을 높이는 전술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가 외부에서는 강경한 투쟁을 벌이면서 정작 협상 테이블에서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새로 생긴 삼성 노조 입장에서 갈등을 통해 조합원을 결속하고 사측에 부정적인 직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가 투쟁 이유와 요구 사항으로 여러가지를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더 올려달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급휴가를 쓰지 않으면 적지 않은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노조는 사측이 유급휴가를 조건부로 내건 데에 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기본 임금이 워낙 높아 임금을 많이 올려주기에 해도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임금 격차가 커지고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노조 요구를 들어주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조주완 “민첩하고 즐거운 조직문화 만들자”

(LG전자 사장)

LG전자 ‘REINVENT Day’ F.U.N한 조직문화 혁신 시동

LG전자 임직원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나눴다. 새로운 가치를 담은 ‘REINVENT 가이드’를 공유하며 쇄신 의지도 다졌다.

LG전자는 3일 온라인에서 ‘REINVENT Day’를 열었다고 밝혔다.

‘REINVENT LG전자’는 구성원들 스스로가 즐거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새로운 LG전자를 재가동하자는 의미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문화의 방향성과 실천 방안을 놓고 격의없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사장은 이날 온라인 미팅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강력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 민첩하고 즐거운 LG전자만의 조



조주완 LG전자 CEO /LG전자

직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행사를 마치고는 임직원에 CEO 레터도 보냈다. “바꿀 수 있는 것들 바꿔봅시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도 바꿔봅시다. LG전자 새롭게 태어나봅시다”라며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2월초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소통의 어려움과 느린 실행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8개 핵심 가치를 뽑아 11가지 ‘REINVENT LG전자’ 가이드를 마련했다. 지난달 말 최고경영진 워크숍에서 가이드를 공유하고 공감하기도 했다.

이같은 가이드는 지난해 말 조주완 사장이 취임하면서 제시한 ‘F.U.N’ 경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모든 생각과 행동을 고객 중심으로 출발해 혁신적인 고객 경험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도다. 가이드도 가전제품 사용설명서를 패러디해 만들어 구성원들이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통 ▲민첩 ▲도전 ▲즐거움 ▲신뢰 ▲고객 ▲미래준비 ▲치열이 핵심 가치로 정해졌다.

/양성운 기자



기아 신형 니로 EV.

기아 ‘신형 니로EV’ 사전계약 진행 ‘배터리 컨디셔닝’ 전기차 최초 적용

한 번 충전으로 401km 주행 ADAS 탑재 등 안전성 확보

기아가 배터리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을 최초로 적용한 ‘디올 뉴 기아 니로(신형 니로)’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에 들어간다.

3일 기아에 따르면 신형 니로 EV는 401km에 달하는 우수한 1회 충전 주행거리, 실내 안전성 및 거주성 확보, 고급 편의사양 및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적용, 하이테크하고 유니크한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등이 특징이다.

신형 니로 EV에는 배터리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을 기아 전기차 최초로 적용됐고 가속페달만을 이용해 가속 및 감속, 정차까지 가능한 i-PEDAL 모드도 장착됐다.

한층 커진 차체는 여유로운 실내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2열 실내공간은 시트 좌좌 자세 최적화와 등받이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2열 6대 4 폴딩 시트(리클라이닝)가 적용됐고, 트렁크 공간은 1세대 니로 대비 24L 확대됐다.

기아는 신형 니로 EV에 고급 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하는 등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차량 외부로 일반 전원(220V)을 공급할 수 있는 V2L은 일반 가정의 시간당 평균 전기 소비량인 3kW급의 전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의 ‘기아 커넥트 앱’을 통해 차량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목적지를 설정하면 주행거리에 따른 예상 배터리 잔량 정보를 표시해 주는 등 EV 특화 기능으로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또 신형 니로 EV에는 기아의 가장 진보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탑재돼 한 차원 높은 주행 및 주차 안전성을 제공한다.

K8, K9 등 기아 고급 세단에 적용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 2)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와 설정 속도를 유지하며 차로 중앙을 주행하도록 도와주며, 방향 지시 등 조작만으로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 준다.

신형 니로 EV는 대담하고 세련된 디테일의 디자인에 유니크한 디자인 요소가 반영됐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메타모빌리티 비전 담은 ‘별뿔별 NFT’ 판매

이더리움 기반 공식 NFT 1만개 리빌 방식으로 이달 말 변환 예정

현대자동차는 메타모빌리티의 비전을 담은 별뿔별 대체불가토큰(NFT)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별뿔별 NFT는 전날 오픈된 현대차 NFT 공식 웹사이트에서 9일부터 10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더리움 기반 공식 NFT 1만개로, 화이트리스트 대상 판매는 9일, 일반 고객 대상 판매는 10일에 진행된다.

이번 별뿔별 형태의 NFT 판매는 지난달 18일 공개된 ‘현대X메타공즈’ 영



‘메타모빌리티 유니버스’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NFT 시장 진입을 선포하며 NFT 전용 글로벌 커뮤니티를 구축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판매된 ‘현대X메타공즈 콜라보레이션

NFT’는 뜨거운 관심속에 매진됐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초로 커뮤니티 기반 NFT 시장에 진출한 현대차는 현재까지 트위터에서 8만6000명, 디스코드에서 12만7000명의 팔로워를 모은 상태다.

현대차의 메타모빌리티 NFT에는 리빌(Reveal·추후 공개) 방식이 적용되며, 1만개의 별뿔별 NFT는 이달 말 전자지갑에서 메타모빌리티 NFT로 변환될 예정이다. 구매자들은 속성이 조금씩 다른 이미지 NFT를 갖게 되며 그때까지 이미지는 비공개로 유지된다.

/양성운 기자